부록 1

결로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생활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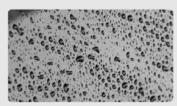
- 국토교통부, 한국토지주택공사



₩ 결로란 무엇인가?

② 결로는 우리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**자연현상** 입니다.

겨울철 유리창에 발생하는 물방울, 여름철 차가운 물 컵 표면에 생기는 물방울 등 결로는 언제, 어디서나 발생조건이 갖추어지면 생기는 자연현상입니다.







♀ 결로는 발생시 즉시 제거해 주세요!

결로를 방치하면 곰팡이 발생 확률이 높아지며, 곰팡이는 알레르기 및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

공동주택내 발생가능 곰팡이들







곰팡이발생시 제거요령

관리해 주세요.

결로발생시 제거요령

곰팡이 제거시에는 환기가 되는 상태에서 염소계소 독제(락스 등 제품별 사용법 준수) 또는 구연산(물과 1:10비율로 희석)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.

결로현상에 의한 물방울은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

되므로 즉시 닦아내고 선풍기 등으로 잘 말린 후 제습기

또는 주기적인 환기를 통하여 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

◊◊ 공동주택 결로발생 환경

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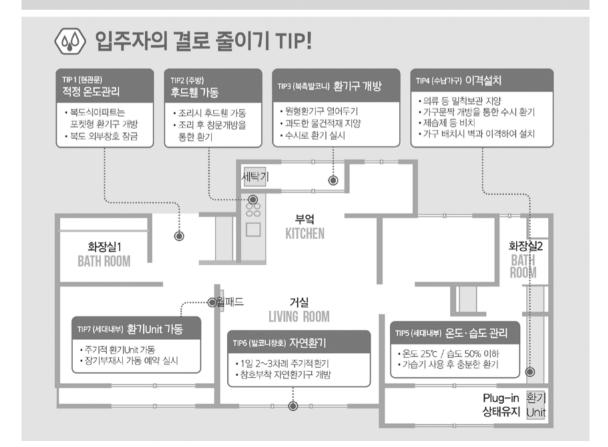
신규 입주단지의 결로환경

입주 초기 단지는 콘크리트, 방비닥 미장 등으로부터 습기가 방출되어 실내 습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, 시간 경과에 따라 김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.

건강한 가습기 사용요령

*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 정책플러스 게시자료

- 기습기는 세제보다 식초, 베이킹소다, 소금물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세균번식을 막기 위하여 정수기 물보다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③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은 피합니다.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가 갇혀있고 분무된 수증기가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면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여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
- 가습기 사용 전/후 하루 2번(10분 이상) 실내환기를 실시하면, 곰팡이 등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

▶ 욕실 공간의 특성

▶ TIP

욕실은 사위, 목욕 등 생활여건상 많은 수증기가 발생되는 공간입니다. 수증기가 원활히 배출되지 않거나. 현관 또는 드레스룸 등 인접한 공간으로 확산될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. 관리가 필요합니다.

인접공간으로의 수증기 확산방지를 위하여 20분이상 가동 권장

- 욕실에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을 열어 주기적으로 환기 욕실 사용시 환풍기 가동
- 사워(목욕) 후 출입문을 닫은 상태로 환풍기를 가동하여 수증기 제거

▶ 발코니공가의 특성

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입니다. 장마철과 겨울철 약간의 습기에 의해서도 쉽게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
- 발코니 원형환기구 상시 개방
- 겨울철 하루 2회 이상, 충분한 시간동안 환기
- 벽에 밀착하여 짐을 놓거나, 창고(선반)문 등 추가시설물 설치시 결로발생 확률이 높아짐 (특히 대피공간 내 대피에 장애가 되는 물건적재는 지양)
- 세탁공간일 경우, 세탁기 가동시 환기 실시(미가동시에도 주기적 환기)

「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」(국토교통부교시제2013-845호) 「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제정」 * 적용범위 등은 고시내용 참조

*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,molit,go,kr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동주택 결로저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Step 1 온도·습도관리













__ Step 3 결로발생시 제거



※하루 2~3차례 환기를 해주면 오염된 실내공기의 정화와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